



사람의 자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597.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것은 천국에서 나오는 선과 지옥에서 나오는 악 사이의 균형이며 따라서 영적 균형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영적 균형은 본질적으로 자유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것은 선과 악 사이, 진리와 허위 사이의 균형이며, 선과 악, 진리와 허위는 영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선이나 악 중 하나를 의도할 수 있는 능력, 진리나 허위 중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자유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이 자유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결코 거둬가지 않으시는 것이다. 사실 그 근원으로 보자면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명과 함께 사람에게 주어져 마치 사람 고유의 것처럼 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고쳐지고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유가 없이는 고침도 구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옳거나 그르케, 성실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정하거나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의 자유의 일부라는 것은 합리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적, 도덕적, 사회적 법으로 자기 외면을 자제함으로써 잘못되고 불성실하고 불공정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고 공정한 말과 행동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 안에 있는 것은 생각하고 의도하는 주체인 사람의 영이지 말하고 행동하는 그의 외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단, 방금 언급한 세 가지 법에 따를 때는 예외가 된다.

598.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고쳐질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은 모든 종류의 악을 타고나며 그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데, 악을 제거하려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고 인식하며 나중에는 그 악을 의도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그 악을 혐오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악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악 안에 있는 만큼 선 안에도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악을 볼 수 있는 것은 선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악으로 말미암아서는 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사람의 사고수준에 맞는 영적 선을 배운다. 그리고 세상 생활을 통해 도덕적 사회적 선을 배운다.) 이것이 왜 사람이 자유 안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첫째 이유다.

(2)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에 속한 애정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런 것은 사람 안에 들어온다 해도 생각 속에 머물 뿐 의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사람의 의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기억에서 나오지만 의도하는 것은 생명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오직 의지에서 나오는 것만이, 즉 사랑에 속한 애정에서 나온 것만이 자유롭다

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의 자유는 그의 사랑에 속한 애정, 즉 그의 의지와 하나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진리와 선에 영향을 받고 진리와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리와 선이 사람 자신의 것처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3)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자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남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의 사랑, 즉 의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사랑, 즉 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의 영에 속하지 않는다. 사람의 영은 그 본질이 사랑, 즉 의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랑이 곧 의지라고 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의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자유 안에서만 고쳐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뒤에 덧붙일 《천국의 비밀》 인용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599. 사람이 고쳐질 수 있도록 자유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은 천국과 지옥 양쪽과 결합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지옥에서 온 영들과 천국에서 온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지옥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악 안에 있고, 반면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 안에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영적 균형, 즉 자유 안에 있다. 천국의 천사들과 지옥 영들이 각 사람에게 와있다는 것은 천국과 인류와의 결합을 다룬 장(291-301항)에 나와있다.

600.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과 결합하는 것은 직접적인 결합이 아니고 중간영계에 있는 영들을 거친 간접적 결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지옥이나 천국 자체에서 직접 사람에게 오는 영은 하나도 없고 중간영계의

영들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중간영계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람은 지옥과 결합되고, 선한 영들에 의해서 천국과 결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영계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에 놓여 있고 그곳에 균형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중간영계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역이라는 것은 중간영계를 다룬 장(421-431행)에서 볼 수 있고, 본질적 균형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전 장(589-596행)에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사람의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601. 사람과 결합되어 있는 영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하겠다. 한 공동체 전체가 그 공동체에서 파견한 한 영을 통해 장소에 구애됨 없이 다른 공동체나 개인과 교통할 수 있다. 이런 영을 다수의 대리자라고 부른다. 천국 공동체들과 지옥 공동체들이 사람과 결합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즉, 사람과 결합해 있는 중간영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 인용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602. 끝으로 천국에서 사람 안으로 흘러드는 입류의 영향으로 사람이 사후 생활에 대해 갖게 되는 직감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 세상에서 신앙에서 나온 선함으로 산 단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려지고 나서(주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사람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살 때 어떤 지식인들이 우리에게 지상의 삶이 끝난 뒤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영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될 거라 믿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영으로 살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영이 무엇이라고 믿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영은 사람이라

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지식인들은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갖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놀라워했다.' 나에게 이것은 천국과 결합된 모든 사람에게서는 사후 생활에 대한 어떤 직감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이런 직감의 원천은 오직 천국에서 오는 입류, 즉 주님에게서 비롯되어 천국을 거쳐서, 사람과 결합해 있는 중간영계 영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입류 외에는 없다. 이 직감은 여러 가지 논리로 사람의 영혼에 관한 선입견적 관념들을 획득하고 고착시킴으로써 자신의 생각하는 자유를 없애버린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선입견들은 영혼은 순전한 생각이라거나 몸 안에 정착하는 어떤 활동원리라고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혼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며, 영은 사람 자체인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나는 물질적인 몸은 그 사람 자체인 영이 자연계에서 활동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진 대행체에 불과한 것이다.

603. 천국과 중간영계와 지옥에 대해 이 책에 기록한 것은, 영적 진리를 배우는 데서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호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진리를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특히 진리 자체를 목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모두 마음 속에서 밝히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이 진리를 사랑할 때는 더욱 그렇다. 모든 진리는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